

# 복음

## 바울이 로마서에 따르면

### 소개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차단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로마서라는 기록된 문서를 통해 그 도시의 신자들과 그것을 나누도록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갈 1:12).

그 내용은 성경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부터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바울의 동시대 세대만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지며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15:4.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가 받은 지혜대로...그의 모든 편지에 썼는데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베드로후서 3:15, 16)고 썼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의 내용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서신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초점은 로마서에 제시된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구절씩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 의무를 제시하고 신자들에게 인사하는 데 전념한 마지막 장들은 다루지 않는다.

이 출판물의 목적은 출신, 국적, 종교적 성향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영혼의 구원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니 이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아들이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ROM. 1:1-7.

사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편지를 시작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에게서 배운 것과 그가 받은 사명.

그는 유다 자손 가운데 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친히 그분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믿었고, 그분을 믿는 신자들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적을 추구하시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느끼시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갈 편지를 달라고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종파에 속한 몇 사람을 찾으려 함이요. 아니면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불꽃이 그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땅에 쓰러지자 그는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느냐?                    당                                    무엇                                    나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당신이 짜림에 저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는 떨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거기서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9:1-6. 삼일 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종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러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사를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곧 각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니라”(행 9:17-20).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갈. 1:17, 18.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 연구와 그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안다.” 고린도후서 12:1-4.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을 배우고 로마인들에게 설명하려던 때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 고티. 1:11, 12.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소식은 하늘에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 서문에서 바울은 복음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전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복음을 공부하여 배우게 될 내용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로마서 주석의 목적은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각 독자가 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에 제시된 사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인사말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공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편지의 문안 내용은 우리와 고대 로마인들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의 주제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들의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마음은 거짓되고... 누구든지

알겠어?” Jer. 17:9. 그러나 그분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 당신은 나를 조사했고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 주께서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내 혀에 말이 없나니 보라, 오 선생님 , 너 다 아는군.” 시 139:1, 2, 4.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하기보다는 로마서의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만큼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것은 19절부터 주석을 시작하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에 대해 언급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나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기회, 당신과 함께.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함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곧 너희가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1:8-12.

~처럼

나의."

ROM.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1.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4)함에 따라 복음은 당시 세계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자고 밤낮에 일어나되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못하고 씨가 나서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바다.

4:26, 27.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1.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직접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와 그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위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고린도전서 9:16.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전달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생들인 로마인들의 신앙 경험을 알면 자신도 축복과 위로를 받을 것임을 겸손히 인식합니다. “당신과 나의 상호 믿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위대한 사도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했든, 우리는 최신 개종자의 경험으로부터도 항상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으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요 6:45)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은 것을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질서나 리더십,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세계 교회를 이끄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막내에게 주신 “계시”에 순종하도록 강요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내 형제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간증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하셨고 교회의 위계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뜻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이 모든 진실한 신자들을 존경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에 대하여 답변할 자로서 너희 영혼을 보살피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탄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히 1:1). 13:17.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람, 즉 지도자와 인도자들은 교회에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의 삶과 경험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세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확립된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당화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막혔으니 너희 가운데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뜻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리스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쬐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있는 힘껏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로마에 있습니다” 롬. 1:13-15.

바울은 로마를 더 빨리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자신이 “방해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어떤 인간 도구가 그의 여행을 막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대적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든 로마 신자들이 그에게 맡겨진 복음 계시에서 빛의 광선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과된 어려움이 그의 목적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 계시의 핵심을 담은 서면 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쬐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편지의 순서가 복음에 대한 설명에 전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OM. 1:16, 17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원래 번역된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데에도 나타나며, 여기서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번역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오늘날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10. 11.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좋은 소식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메시아"로 알려진 히브리어 용어를 번역한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제자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후, 그분을 형제 베드로에게 알리러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를 만났습니다”(요한복음 1:41).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밝혔습니다.

죄가 생긴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사야는 영감을 통해 그분에 대해 말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분을 통해 인간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평화가 회복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국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6. 그분은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그리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에게 평화가 임하였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고전 15:3) (인용: 롬 6:23; 사 53:5; 벧 후 1:24, 갈 1:23).

고린도전서 3:13, 고전 15:3).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의의 영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나니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산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의 영과 열렬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 4.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의입니다: “그의 계명은 다 의로우니라” 시 119:172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순종하게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행동하시며, 죄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싸우시고 유혹에 대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반대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 5:17.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분은 어떻 서 2:13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순종을 두어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약속하셨는가? “그 날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브리서 1:1). 10:16.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느니라”(아멘은 “그렇게 되리라”는 뜻)(고후 1:19, 20).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순종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데, 이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로써 우리를 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 유일한 참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모든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따라서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게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 보이지 않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18-20).

“하나님은 본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요 1:18).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안에 자신에 대한 계시를 남기셨다(창 1:1). 푸른 하늘,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이다”(사 64:8)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 내가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묵상하나다”(시 143:5). 따라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특성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몸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창조물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 그분의 영원한 능력; (2) 그분의 신성. 무한히 지적이고 선의를 가진 존재만이 수많은 상호의존적이고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구동되는 아름다운 존재를 잉태하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뇌와 심장의 조화롭고 공동 기능을 통해 움직이는 아기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생각해 봅시다. 뇌는 심장을 제어하고, 심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어느 것도 이전에 나타날 수 없었거나 다른 것보다 독립적입니다. 둘 다 필연적으로 같은 몸 안에서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 작은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새들이 매일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누가 제공합니까? 누가 우리 몸이 음식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추출하도록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잠을 주고 들판을 아름다운 꽃으로 덮습니까?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의 능력과 무한한 사랑입니다 . 모든 사람을 위한 섭리에서 인간은 창조주로서의 그의 신성과 지위, 그리고 그의 유지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

또한 인간은 자연의 모든 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몸의 기관이든 남을 위해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억압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따라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인 반면, 불의는 공의의 율법의 원칙,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마 22:38-40)에 어긋나는 그릇되고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셨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지식 -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 사는 것 - 누구도 불의와 불경건을 행하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의 작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말이 피곤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롭게도 어리석게 되었느니라” 롬. 1:21, 22.

인간 과학의 가장 큰 오류는 자연 속에서 그 저자의 발자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그리고 그분의 일에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자연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이 자존하고 그 현상이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과학 자연법칙의 창시자이자 만물의 유지자이신 그분의 능력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관점에서 그러한 결론은 어둠에 비견됩니다. 이 노선을 따르면 과학자들은 자신의 결론을 허식과 위대함을 가장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는 광기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예시를 위해 한 사례를 인용하겠습니다. 인류 과학은 이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마리의 코끼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미 광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옫을 “땅을 공중에 매달으셨다”고 말했습니다.

26:7. 몇 세기 후, 인류 과학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여 지구가 “외계 공간에 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론은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느니라.”

“또 저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가진 것과 기어다니는 형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사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악한 욕심에 버려두셨느니라 그들의 아내

그들은 자연에 반하여 자연스러운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을 행하여 마땅한 상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의 실수에” 롬. 1:23-27.

자연의 작품을 고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대부터 모든 민족은 자신의 신을 만들어 예배와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함으  
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상상에 따라 신의 형상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동료와 심지어 일부 동물에게서도 관찰한 특성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으니” 즉 그들은 죄로 얼룩진 제한된 피조물, 더 나쁜 것은 하나님  
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질 것과 새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 이니라.

인간은 관찰을 통해 배운다. 죄로 오염된 이 불완전한 존재들을 관상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은 점차 그들을 닮  
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존경하고 섬겼느니라.” 친밀한 접촉조차도 동물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유래한 다곤이라는 신을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삿  
16:23). 다곤은 몸이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인 우상이었습니다. 다곤 신부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교황이 썼던 것과 비슷한 물고기  
입 모양의 모자를 썼습니다. 자웅동체 물고기가 있습니다. 즉, 수컷과 암컷 모두로서 번식 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  
람들이 이런 신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물고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명 높은 정욕에 버려두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자들도 자연에 반하여 자연스러운 용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  
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수십 년 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AIDS(또는 AIDS)의 전염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최근인 2022년에는 원숭  
이두창 전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  
져올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합당한 상”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패역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법, 음행, 악독, 탐욕, 사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원망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주제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며, 계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기를 잘 아니하며, 긍휼이 없느니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롬 1:28-32).

피상적인 독자는 위의 본문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하도록 자발적으로 지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셨다”는 표현은 그분이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보낸 많은 훈계를 거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행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호 4:16, 17. 비록 그분은 죄인들의 양심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조언하고, 경고하시고, 심지어 어려움이 그들을 제지하도록 허락하실지라도, 그분은 그들이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할 권리도 보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극히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만들었느냐 하니 팔아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사람을 가만두어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원하되 내게는 너희가 항상 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미리 가서 내 몸에 기름을 발라 장사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각처 에서는 그녀는 또한 그녀의 기억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3-9.

마리아의 마음은 구세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의를 그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약 300데나리온 상당의 향유를 구입했는데, 이는 당시 300일, 즉 거의 1년의 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을 때 손님들은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색한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구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떠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요한복음 12:5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가 선택한 길을 따르고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순결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구출하거나 보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간청을 완전히 거부하신 후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식 - 나쁜 것.

로마서 1장의 본문은 이전 구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신성한 사랑,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의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기로 결정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쁜 길을 벌하실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므로 그 일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 로마서 2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네가 누구든지 판단할 때에는 핑계치 못하리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잘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너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1-3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직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흔히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는 심지어: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 마치 매일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가 나쁜 행동에 대한 일종의 참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받음으로써 그분은 다음을 간과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비유적으로 자기 평가의 "명예 받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낍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 "나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 과해요!"

로마서 본문에 따르면, 이 표현을 올바르게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내 이웃의 죄는 너무 커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연설의 위선을 비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판단할 때에는 핑계치 못하리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잘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사람아 너는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야고보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17.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할 정도로 옳고 그름의 차이를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웃을 척량하는 자에게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측량할 것이요”(막 4:24).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깨달은 바에 따라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주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직 네 강팍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심판의 날에 네 자신을 위하여 진노를 쌓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심이라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다툼을 벌이며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불의에 순종하는 자니라” 롬 2:4-8.

하나님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친절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면서 열거했습니다. “만주들 중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놀라운 일만 행하는 사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광명체들을 만드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태양이 낮을 다스리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3-26. 하나님의 친절을 나타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크든 작든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부터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는 태도와 저항하는 태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행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모든 증거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의 영의 감동을 저항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휼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디도서 3:4-6. 또한 그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한에 따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히 죽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5-8).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여 이기심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위와 사고 습관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깊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비례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그분의 영의 영향력에 굴복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일은 모두 그분의 것이며, 우리의 저항, 즉 “강인함”에 의해서만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의 영향력을 영원히 저항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1:1). 6:23.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때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각처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알리시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음이니라. 정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성을 주셨느니라”(행 17:30, 31)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끊임없는 접촉에 민감해지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네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네게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오직 다툼을 벌이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진노가 되리라.” 본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를 부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로 치시리로다 내가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으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이루어졌으니... 일곱째 천사가 그 잔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이루어졌다... 큰 바벨론이 기억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려고... 또 하늘에서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내리니 무게가 한 달란트 (혹은 34킬로그램)나 되는 돌들이더라.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컸기 때문이다. (계시록 15:1, 16:17, 19, 21).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벌이 성취 될 때에는 지구상에 일어날 악을 고려하여 형벌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먼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있거니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 사람에게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로마 서 2:9, 10.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상파울루에서 리오까지 여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의.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차가 올바른 도로에서 벗어나면 길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동안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명을 알고도 떠나는 자는 무지하게 행하는 자보다 염려하고 번뇌하는 것은 그 잘못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지의 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으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행 17:30; 요한복음 16:8).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을 알았으나 둘째는 알지 못하였으니 한편으로는 영광과 평강이 그에게 임하리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감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관을 통해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손길에 복종하므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 데서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먼저 환난이 닥치는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궤적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 각자의 요청을 처리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엘림에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의 음식으로 계획하신 빵, 곧 만나를 그들에게 알리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다가 여호와와 손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출애굽기 16장 3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식물을 그들에게 주시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를 저녁 사이에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니라... 저녁 때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느니라” 16:12, 13. 동시에 그분은 그들의 식단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며 그들에게 고기 없는 식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그로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가 일어나 보니, 보라, 광야 지면에 땅 위의 서리처럼 작고 둥근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나?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이라고 주신 빵이니라.” 16:3, 14, 15. “하늘에서 내린 떡으로 저희를 배불리시며” 시 105:40.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태도는 하나님께 반역을 나타냈고 그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원한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노라.”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 혼이 메마르고 우리 눈 앞에 이 만나밖에 없나이다’ 11:4-6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평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리니 콧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먹되 너희가 질릴 때까지 먹되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거기서 나오느냐 하느니라 애굽 ... 백성이 일어나 메추라기를 모아 진 사방에 퍼니 고기가 그들의 잇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라 여호와를 치시니라 심히 큰 재앙을 가진 백성이니라” 민수기 11:18, 20, 31-33.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식욕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그들의 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죽이시니라.”

시 78:30, 31.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많이 맞으리라 적게 맞으면 벌을 받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니라



그에게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루크. 12:47, 48. 사회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아이보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들, 즉 성경을 복사한 서기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장터와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거짓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0:46, 47. 신성한 역사에 관한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저희에게 예표로 임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1, 12, 로마서 2:10).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 되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래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하니 그들의 생각과 고발하든지 변호하든지 내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 2:9-16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공의의 기준입니다. "들은 바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12:13, 14.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언뜻 보기에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개념을 소개합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없이도 망하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자기 범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3:4.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너희의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념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범위의 일부는 말라기의 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십일조와 헌금으로”(말 3:8). 이 구절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공언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메시지 수신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훔쳤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십일조와 헌물에 대하여” 도적질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무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불공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들의 양심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진리”(시 119:142)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13. 그러므로 영은 모든 사람에게 계명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창 26:5)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지키었느냐 그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손에 손을 대니라

영을 통한 의식.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지어 십계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양심에 죄를 드러낸 만큼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 없이 망하느니라”라는 표현이 전달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의 문자를 알든 모르든 동일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주신 이해에 비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었던 신성한 뜻에 관한 빛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에 대한 신성한 영의 접촉이 그들의 "직관"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직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문자에 일치할 때만 안전한 지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기 쉬운 것은 사람의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요점으로 돌아가면,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이 사도 바울 자신에 의해 다음 구절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래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어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으로 그 양심과 생각을 고발하든지 변호하든지 함께 증거하리니 그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것과 같으니라

심판 날에 각 사람은 언제, 어디서,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주시는 손길과 관련하여 매우 진지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15.

“보라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며 네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라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라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성모독을 행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ROM. 2:17-24.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문서의 관리자들이 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배교하여 앗수르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추방되고 흩어졌습니다(왕하 17장).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지파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가 계속 탁월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율법 수여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실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10.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각기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살았으나 이스라엘의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지파”(빌 3:5)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는 때때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언급합니다(예: 롬 3:1).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유다의 후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혈통을 따른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바울이 신약 시대에 이 글을 쓴 것처럼 그것은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경륜의 시대에 율법을 가르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진합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유대인”이라는 용어로 식별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달음에 비례하여 순종을 베풀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훈계를 받아 이웃의 잘못을 분별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자를 죄인으로 지적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가르치지 않아

정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영원에서 우리는 진리를 공언하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간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가리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루크. 17:1, 2.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매우 단호하게 권하십니다. 너희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네게 나으리라”(마태복음 5:29, 30).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어찌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본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로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도 유대인이 아니니라 육신으로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25-29.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육신으로 행할 표징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대표하는 영적 현실의 상징이자 기억이 될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는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이니라”(창 17:10).

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돌칼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5:2.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은 그리스도시니라”고전 10:4 (또한 에베소서 2:20 참조). 따라서 고기를 자르는 의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거나 잘라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이기심을 제거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셨으니... 영과 육체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육체의 일은 알려져 있으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탐식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에 반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사. 4:6; 5:17-24. 즉,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영의 결과는 우리를 십계명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은 성령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참 할례, 즉 그분의 영에 의해 행해진 참된 할례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참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의 활동의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할례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고 말했습니다.

3:3. 그분의 영은 우리의 악한 성향을 자르는 “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을 강압케 하여 성령의 변화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육체의 할례는 헛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계명을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민하고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참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참할례는 우리 마음에 행해지는 것처럼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의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분의 삶 속에서 수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외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된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니라."(롬 2:25) 개인의 육신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할례를 행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됩니다. 그는 자기 육체를 보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되리라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롬

2:25).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을 이루시지 못하게 하는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할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를 순종하

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돌칼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와는 거리가 멀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작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늘의 대리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28, 29.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리이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신 것이니이다”(사 26:12)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사 26:12).

죄(행 16:31). 그분은 너를 의롭게 행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2장의 요점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나머지 말은 어떤 사람이 참된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딤후 2:13). 자신의 양심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영의 접촉에 민감한 사람은 누구나 아직 십계명의 기록된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받아 점차 그 원칙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무할례자(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무할례자를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냐(순종하는 자로 보이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 자 곧 회심하고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로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ROM. 2:26, 27.

성경은 죄와 의 사이의 싸움이 끝나면 성도들이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 베임을 당하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느니라 천 년 동안.” 그리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재판하는 모든 혀는 네가 정죄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나에게서 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계 20:4, 사 54:17).

이 장의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탐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참된 할례는 영의 할례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유대인임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 외적 육체의 유대인이 할례자가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유대인이 할례자가 아니요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신에 속한 자니라. 마음에 있고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 29). 아멘!

##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범사에 많으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겼느니라”( 롬 3:1,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계시의 보고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파 전체, 즉 레위 지파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레위의 언약”이라고 부르신다(말 2:8). 이 지파 곧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으니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이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임이니라” 말 2:7.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과 계시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학문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는 축복의 살아 있는 모범이 될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과 신성한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르시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여호와께서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나오되 일곱 길로 네 앞에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사 네 손에 함께 하리라 곳간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여호와와 이름이 일컬음을 보고 너를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로 삼으시리라 꼬리도 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만일 네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 28:1-13.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되 우리가 속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자 나도 가리라 하리니”

수많은 백성들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와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Zac., 8:21-23.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을 것이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로 모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3:17.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강박함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리요 결코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 하는 자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받고 이기리라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에”(롬 3:3, 4).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경에 발표된 메시아, 곧 그들에게 모든 신성한 축복을 주실 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느니라”(고후 1:19, 20).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았다(고전 2:8, 행 2:36).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겨진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다. 약속된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신성한 능력을 빼앗기고 범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말 2:8).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하여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열조 때부터 너희가 내 율례를 떠나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말 3:7)고 하셨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신실한 백성을 갖고 계실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축복의 약속은 그분의 참된 교회를 경험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거룩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엡 5:25-27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영”(계 14:12, 12: 17, 19:10). 그는 신자가 경험의 시작부터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며 걷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13. 그러므로 그 참된 구성원 각자는 “하나님을 따라” 개종한 “새 사람”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엡 1:1). 4:24.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회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역 넷째 천사 마지막 경고, 만일 너희가 순종과 거룩함에 충실하고 수 세기 동안 약속된 축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면, “그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을 것이요. 주님과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그녀에게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은 그 악한 마음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3:17.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마 24:14, 롬 1:5).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사람을 누구나 유대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이를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믿는 자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는 유대인의 옷자락을 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을 들었으므로 우리도 나와 함께 가리라 하리라”(속 8:21-23).

이 말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민족이 개종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참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로;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불신자들과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래를 분석할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가 선택하는 운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입장에서 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행로에 대한 평가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기록된 바 너희가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받고 심판 때에 이기리라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이끄신 방식을 고려한 후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그분께 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 원인이 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여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시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심판하시리요  
맏소사 세상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리요? 그리고 왜 우리는 (우리가 모독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정죄는 옳으니라”(롬 1:1). 3:5-8.

하나님의 행동 방식은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한 나라를 향하여 신원하시며 간사 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시 43:1).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의 가해자가 자신의 위법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사실이 악을 일으킨 자를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고... 악인의 악이 그에게 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18:4, 20.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주는 인생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각 사람의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옵하시나이다” . 32:17-19. 정의는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비례하여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재앙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시되 가서 일곱 재앙을 땅에 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계 16:1 인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의 행실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참된 정의의 행위로 비취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리라"(딤후 3:13). 로마서에 따르면,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로우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그의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악인의 관점에서 본 말세의 현실을 고찰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뚤어질수록 그는 의로운 이웃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가 순종하는 성경의 계명을 더욱 강조합니다. 분명히 악인은 의인을 생각할 때 그 대조를 알아차리고 양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정의의 향상에 협력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할 수 있다고 추론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면, 그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사악함으로 인해 정죄를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다음 말의 의미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아직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악을 행하자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그 물건이 왔느냐? 그들의 정죄는 옳으니라."

위의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분명히 생각할 때에도 성취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도구를 통해 행동하시어 해방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명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실이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하여 그분께 행동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해를 끼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의에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모. 4:17.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죄는 정당하다”는 말이 타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악한 자들에게 모독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신성모독이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하지 않은 행동을 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꼬리표를 붙이면 신성모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은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신성 모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태만과 사악함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나니 이전에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Eph. 4:21-24.

대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 인간 대리인을 고용하여 그분의 사자들을 비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편견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고후 4:4).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 문입니다(마 24:14).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사 11:9).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더 나은 자이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앞에서 보였 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도다 다 그 룯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궤술을 행하며 독을 행하는도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 기에 빠르며 그 길에는 파멸과 고난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 롬 3:9-18.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이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라”(요일 3:7).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계명은 공의”(시 119:172)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로마서. 5:12.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자신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느니라

그것에 저항하십시오. 그는 이 유산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래 설명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7:14; 8:7, 8).

선천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인류의 조건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 씀에서 탐구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를 묘사하며, 당시와 오늘날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릇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궤사를 행하며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도다 파멸과 불행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롬 1:16).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19, 20).

위의 말에서 바울은 현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을 넘어선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정죄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4).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1:1). 6:23.

법을 알기 전에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알면 양심이 분명히 깨어납니다. 그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는 죄를 깨닫게 되나니"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정부의 주체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느니라."

몸이 아픈 사람만이 의사에게 갈 필요를 느낍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야 하며, 구세주에 대한 진정한 필요를 느끼기 위해, 즉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의(마 5:6)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1:18부터 3:20까지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기 위해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없이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십계명을 아는 자들의 현실도 그러하니 지식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며 악한 성향을 극복할 능력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되 자연의 행위로 말미암아 알게 하느니라 또는 십계명의 문자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병든 자로 포장하고 이 사실을 확신시킨 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치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1-23)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 없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이전 구절에서 이해됩니다. 3장 초반부터 그는 율법의 백성으로 알려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19절을 통해 그는 율법을 아는 것이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본성상 하나님이 제시하신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교도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율법은 그들이 얼마나 범죄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에만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바꿀 수 없는 죄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면 율법의 문자 이상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문자 이상의 것이 이 말로 선포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구할 수 있는 성경은 구약성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집합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꾸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마 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지식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나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 시대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4-26.

여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작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는 불순종하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 20, 21.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베드로전서 1장). 2:24.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각 시대의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값없는 용서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현실의 주인이 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1:1).

6:2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곧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 후에 성령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하고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히 순종하라..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다” 이 표현은 주도권이 그분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 중에 자의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창조한 구원을 제안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롬 3:11). 이 구원은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됩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레 17:11)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엡 4:32). 희생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용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용서는 "속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보장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지시를 받고

국민과 소통합니다. 한편, 산기슭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늦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에서 속히 떠나 스스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앞에 절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니라 모세가 진에 들어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불을 붙이며 진노하사 그 판들을 그의 손에서 내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리시고... 이튿날 모세가 이르되 백성아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켜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니 그들은 금 신들이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 하거든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버려 주십시오”(출 32:7, 8, 19, 30-32).

모세가 행한 속죄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 중보하는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주목하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딤후 2:5). 그분은 우리의 빛을 갠기 위해 그분의 생명, 즉 그분의 피를 내어 주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 죄의 최종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1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이 행하시는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구속하시며 용서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사함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중보의 사역, 곧 속죄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과거의 죄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현재형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성소 예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손가락에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안쪽 두 칸을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레 4:16, 17, 20.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레 17:11), 이 의식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전 3:17) 결과적으로, 그 예식에 포함된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식과 예식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성소에서 행한 피를 뿌리는 일과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 이르시되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더욱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그러하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어. 9:13, 14. 요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신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20:21, 22.

그리스도께서는 호흡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에서도 일어났던 일과 똑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하나님이 생명 없는 흙인형을 만드시고 숨을 내쉬시니 그의 영혼은 인형 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애입니다. 2:1.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 마음에”(갈 4:6) 성령의 능력이 우리 죄의 욕망을 거스려 역사하고 거룩함에 대한 욕망을 심어 주느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여자. 5:17. 더욱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을 회심시키기 때문에 그는 효과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정의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의로우니라(시 119:172).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 5:18.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정죄함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성령을 “성령.” 의의”(이사야 4: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문자 그대로 신자의 마음에 순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사람의 마음, 즉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영을 버리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결과, “현재”, 즉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가 점에 관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잘 지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싶느냐?” 이모. 2:19,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람이 죄에서 의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언하십니다.



그의 존경심, 그가 공정하다는 것. 요한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아 누구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시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1서 3:7-9.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야고보서 2:24.

하나님은 그의 영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죄에서 의로 바꾸시고 회심시킨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 이 일을 수행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희생과 종보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러나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제외되느니라 무슨 법으로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결론짓노라.” ROM. 3:27, 28.

우리 마음에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에도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의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키리이다”(애 5:21)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시니이다” 이사. 26:12.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즉,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십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은 이 일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전 단락이 오해되지 않도록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영”(갈 2:11) 이시기 때문입니다. 5:5. 우리가 이 확신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확신에 저항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의 성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원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아는 것은 확고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르친다.

성경에서. 그녀는 어떤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아들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찢어버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쇠약해 가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라고 명하였더니 능히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묻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공홀히 여기사 도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가 곧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가 만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신 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흔들며 나갔다.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17-27.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또한 이방인에게도 있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시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ROM. 3:29-31.

바울은 앞서 몇 구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1:1). 3:23. 국적은 내면의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동일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인간 조상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묵시록의 때에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작정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느니라.” 계 14:6 국적이나 철학이나 당파나 신조에 차별이 없음을 누구에게나 복음이 다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9.

우리는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능력으로 회심하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갈 4:5; 5:17, 18).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언약의 약속은 이것이니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이해에 두고 기록하리라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느니라.” 히브리서 1장

8:10.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행위가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의 희망은 헛되고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 가라 하리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나오리라.” 마태복음 7:21-23.

## 로마서 4장

“그러즉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리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샅을 은혜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갚으리로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여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ROM. 4:1-8.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조상 또는 승천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그가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롬 4:12).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 곧 아버지라”고 언급한다. 우리 모두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로마서 4:16).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교훈적인 모범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참된 믿음의 예입니다.

제시된 주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이나 “육체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람이 (주님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나 네 태에서 나오는 사람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셀 수 있다면 별을 세어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3-6.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백만 명의 민족 전체가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들을 생성할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

장군. 11:30. 그가 한 어떤 것도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 그를 위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여호와를 믿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므로"(시 119:172)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일을 이루셨음이라 건축.

아브라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용서는 두 가지 축복, 즉 (1) 우리의 과거 죄에 대한 기록을 대체하는 것과 (2) 아래에서 살펴볼것지만 현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우리의 과거 죄의 기록을 대체함.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여러 번 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엡 4:3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므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결과, 그분께서는 신자들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신성한 용서에는 교환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 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임할 죽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구원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죄 없으신 그분의 완전한 삶에 대한 기록이 우리의 과거 범법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합니다(롬 6:23). 이러한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처럼 완전하다고 보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꾸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그에게서 벗으십시오.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3:4. 깨끗한 옷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즉 그분의 의의 삶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아들의 약속의 성취인 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 간주됩니다. 즉 우리의 빛을 갠고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의 과거와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 현재 시제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아브라함의 예는 위에 표현된 교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를 행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을 당시에는 둘 다 생성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몸이 죽었으니 이는 그가 거의 백 세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라는 불임에 더하여 "태가 죽었다" (롬 4:19). "장군. 18:11. 즉, 그녀는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자기 몸이 죽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라의 태가 죽게 된 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 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18-22.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신성한 능력의 작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셨으니 곧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능력인 성령을 우리 육체에 보내셨느니라(갈 4:6).,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된 뜻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갈 5:17)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갈 5:18).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꾸러미에 담긴 즉각적인 축복은 그분의 사역이며 그분의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바꾸고 그분의 완전한 삶을 우리의 더러운 과거와 바꾸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회심을 이루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의 영광은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모두 그분의 것이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칭찬하기 위해 사람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르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느니라"(시 31:1, 2).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나오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나오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전가되었는가?

할례를 받은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인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할례의 표니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할례자 곧 할례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니라.”

ROM. 4:9-12.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나중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보라. 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와 네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7:3, 4, 9-11.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느니라. 게다가 그는 그것을 받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할례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할례와는 별개였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행위에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미덕이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합당하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족장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인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므로 할례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무할례자의 본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약속을 받고 믿었음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믿음의 모범입니다. 이와 같은 추론 방식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는 로마서 2장 28, 29절에 설명된 참된 할례, 즉 영의 할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미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갈 3:14).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 할례당에 속하였느니라” 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도 헛되니라 멸절되느니라” 로마서 4:13, 14

언급된 약속은 죄 없이 새로워진 새 땅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베드로후서 3:1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아브라함은 그 곳에 살았으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여 타국 땅 에 있는 것 같이 초막 에 거하였으니... 하나님 이시니” 히 11:8-10.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오신 후에 새로워진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은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20. 아멘은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 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어진 성령의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협상 카드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소유할 새 땅을 단 한 인치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 즉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순종으로 인해 미래의 유업을 받을 자리가 주어진다 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새 땅에서 거할 자리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무효이거나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의미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폐하여지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요.

오직 율법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믿음에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니라.” ROM. 4:13-17

이 구절의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법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4 (New American Translation).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습니다(시 119:172).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벧후 3:13). 그러므로 유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이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건”합니다. ,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롬 4:12)인 것처럼 그의 영적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들도 다른 모든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17절 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론을 마무리합니다 . 다음 구절을 읽고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과 같으니 저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백 세가 가까웠고 또 사라의 태가 죽어서였기 때문이라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 하신 것은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 능히 이루시므로 그것이 그에게도 의로 여겨졌느니라.”

ROM. 4:18-2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어 아들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 믿음은 이미 인간의 희망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그 자신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자궁이 죽었”습니다. 즉, 사라는 불임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월경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자와 관계조차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족장의 믿음에 대한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의 실현은 이삭의 탄생이라는 신성한 약속의 성취와 동일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고 승인되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자신을 낳을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탐구하여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표현합니다. 우리 삶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많은 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롬 3:22)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한 어떤 일도 우리의 과거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원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그분만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신뢰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즉 우리의 과거 죄에 대한 대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습니다.

앞 문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과정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반역자에서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악하게 기울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미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즉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요 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죄 사함에 관해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진 적이 몇 번이고, 중독에 빠졌는지, 변화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깨뜨렸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사슬을 끊습니다. 정신 감옥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슨 일든지 행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선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신다”(빌 4:13).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3-5.

18-22절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그로부터 또 하나의 진리의 진주를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시련을 거쳐 승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브람은 처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역사는 그가 믿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이 더딘지라 사라가 그에게 그 종과 연합하여 그들로 후손을 얻게 하자고 제의하니 족장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아내의 말을 따르니라 그가 하갈과 더불어 아들을 낳으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의 적법한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였고,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보여준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시험 중에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끝날 때 보여준 믿음도 중요하게 여김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확증”된 후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20년 이상의 지연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승인" -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즉 십계명에 순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받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순종은 “시험을 받고 승인받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12:2.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확고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동안 기도로 그분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게 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인간이 아니더라도 유혹;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고전 10:13).

위에 제시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헤아림으로 삼으라고 기록되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헤아림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분은 우리 죄에서 해방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3-25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의가 인간의 믿음을 통한 신성한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경우에는 아들의 탄생으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소유하고 순종하게 하실 때 이루어 집니다. 이 유사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우리의 순종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행하실 지에 대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시나산에서 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분이 하신 첫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 영적인 의미에서 해방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은 곧 죄로부터의 자유니라 하나님이 첫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빛을 갠하셨으니 우리가 자유하다 하시고 또 덧붙이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전.

20:3.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용된 동사의 시제인 “terás”에 유의하십시오. 미래시제입니다 .

예를 들어, 만약 그분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와 같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면 ,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된 일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형 으로 읽으면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다른 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가시며 미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할 책임은 그분이십니다 .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다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19, 20.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그분의 뜻에 따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제1계명),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제2계명), 훼방하지 아니하는 자(셋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넷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다섯째) 탐심에서 자유로운 자(제10절) 모든 약속대로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미래 시제에 유의하세요): “너는 조각한 신상을 만들지 말며 … 그것들 에게 절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6일 동안은 당신이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당신은 그분 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3-17).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하신 것을 볼 때(하나님. 32:3,4)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완성이 이미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에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 2:13), 그분의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룬 것에는 같은 법칙을 따라 행할지니라"(빌 3:16).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복된 것을 제안하십니다. , 송고한 승리와 그분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그분의 뜻에 대한 점진적인 지식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하늘에서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과 유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늘 집에서 그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분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백성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아멘!

##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1, 2

3장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복음 강해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한 선언이 항상 존재합니다. (1)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2)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현재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시점에서 편지는 그것을 가장 요약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표현은 다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영광을 얻으실 날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고전 1:1).

15:51, 52.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3:21.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는 영원한 젊음의 활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을, 경험은 소망을 낳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 4

사전에 따르면 환난은 짜증나고 불쾌한 상황, 고난, 괴로움, 역경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니”(요한복음 1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의 온 영혼에 환난과 재앙이 임하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롬 2:9)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 올 수도 있고 믿음의 시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의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고전 1:3, 4)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33:2.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시험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인내로 견디는 믿음의 시험은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인내를 행함이라” 야고보서 1:3.

그러므로 우리가 전자를 이긴 후에는 그분을 기다리며 후자를 이기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신체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1km를 달리는 것은 처음 하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에게 훨씬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운동선수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정의 발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자가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원하는 신체 조건을 갖추려면 노력하고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3, 4. 인내를 유지함으로써 시험을 극복하는 경험은 신자가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경험입니다. 다음 시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한 대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니 인내는 경험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는 승리의 경험을 가리킨다. 시련을 참는 자는 믿음의 경험을 쌓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과의 경험”.

그리고 경험은 '희망'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희망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베드로전서)이라고 말합니다. 1:9.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무엇을 보리요 어찌 바라리요.” 롬 8:24 구원의 소망은 오늘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소망에 있느니라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구원은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클수록 구원에 대한 소망도 커집니다.

사도의 말은 우리에게 선순환을 제시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인내는 더욱 성숙해지고, 구원의 소망은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는 더 어려운 시련에 대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더 커집니다. 그분께서 작은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 죄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각각의 새로운 성공적인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의 확신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롬 8:35-39).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리니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느니라 피를 흘리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원수 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5-10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아들의 희생에서 특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갈 3:1, 2, 5). : :5)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위한 것,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대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분을 거부했을 때 그분이 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인간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존경과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원하신다는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동일한 성령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우리가 더욱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더욱이니라 만일 원수 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강건해진 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쓰셨더라면,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일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생명의 길에 두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그 길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중간 지점으로 이끄셨으니, 즉 우리가 화해하게 된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열매로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너희 가운데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끝. 1:6. 이러한 확신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보살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그 여자를 구하는 방법을 아시며 이 일을 수행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느니라.” 로마서 5:11

하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5:2.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롬 1:1). 8:39).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주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2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동등하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요한복음 5:23).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 땅에 살았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창 3:1)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2:17).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내가 먹었습니다”(창 3:11, 12)라고 대답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요일 3:4). 그리고 그는 죄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범죄한 날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으니 그가 손을 펴지 않도록 기도하라.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하리로다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창 3:22, 23. 그녀가 제시하는 다음 이야기는 그의 첫째 아들의 탄생이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창 4:1).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의 자손이다.

죄인.

초기 상태에서 아담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본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거룩함과 순종을 지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넘어진 후, 그는 더 이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중독의 시작으로. 그로 인해 그의 본성이 바뀌었고 그는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전을 통해 모든 후손에게 전해지는 본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니… 하나님도 그럴 수 없느니라”(롬 1:1). 7:14; 8:5, 7.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므로 모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인도를 받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롬

6:23).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아담”(고전 15:22).

이때,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 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 입니다. 바울이 설명했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이라”(롬 8:7). 그러나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장) :4 우리는 본성상 범법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원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항상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범하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표면화하든, 십계명을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아닌 “행위로”(계 20:12)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 정해진 때에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9). 죽음은 죄의 삯이지 죄의 삯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순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본성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8:3. 죽음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온 것이 분명해지면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없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그의 범죄한 것과 같으니라 오실 자”(롬 5:13, 14).

"법에 따라". 이 표현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율법이 전달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전체 기간 동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면 양식.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녀를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계명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창 26:5)고 말씀하셨다.

보존되어 구두로 전달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율법이 없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주장합니다. 계명은 구전 전통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계명 을 아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홍수 이전에 셋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창 4:26; 6:13-18). 홍수 후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달하여 땅의 다른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12:2, 3. 그러므로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영향력 범위에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지상의 다른 주민들의 경우, 그들은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양심에 닿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후자는 그가 그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심과 생각으로 증거하여 송사하거나 혹은 고소하든지 하였느니라”고 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한 관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결백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로마서 2:15).

그러므로 그들의 범법의 결과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한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는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제시합니다. , 독자가 곧 논의될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소개하다.

“그러나 은사는 범죄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및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롬 5: 15.

사도는 대조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통해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악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유익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가 물려받은 악에 비례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받은 축복도 더 큼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그의 모든 후손은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압도되어 그들은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 즉 “우리 모두의 죄”(사 53:6)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5:14). 그분의 생명이 아버지에 의해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 아니라 (롬 6:23)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르셨으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값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이르렀으나 또한 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앞 문단에서 설명한 진리는 로마서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분석하여 발췌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과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를 모두 지칭하기 위해 '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 절(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의 '죽은 사람이 많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은 모두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살았고, 살고, 살게 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범죄로 사망을 가져온 반면 아담은 영생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담의 범죄와는 다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더 많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타락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경은 이 원칙에 대한 객관적인 교훈을 욥의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부유하고 존경받고 행복한 가정의 장이었으나 사탄에 의해 자녀가 없고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하며 모독을 받고 슬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끝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마지막 지체에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고, 그는 그가 소유한 것보다 두 배나 받게 되었습니다(욥 42:12).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에덴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온전한 정금으로 이루어진 성, 큰 진주로 된 열두 문이 있고 그 기초석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석들이 있는 장엄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계 21:18, 19-21). 땅을 그들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은 하늘에 사셨으나 회복된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것”(계시록 21:3; 22:3). 이 두 가지 예는 첫 번째 예를 훨씬 능가하는 미래의 영광을 살짝 엿본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그녀를 목상했지만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사 년 동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함) 한 사람을 아노니, 나는 모르나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 .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이다.” 고린도후서 12:2-4.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섭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바를 통하여 약속된 유업을 믿음으로 목상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이시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하늘에 가보지 못하였느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엡 3:20; 고전 2:9).

“더욱”이라는 표현에는 현재를 위한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습득된 습관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 즉 그의 교회를 도덕적 완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엡 5:25-27) 요한은 말세의 교회를 보고 그에 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나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이니라” Apoc. 14:4, 5. 이 경험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반대 세력, 즉 우리의 성향, 중독의 힘, 사회의 압력, 사회의 압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악마의 힘. 그리고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이 은사는 범죄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이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6, 19).

아담은 범죄한 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죄성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동일한 성품을 받았고, 그들의 성향에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생겨남에 따라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아담의 행위를 통해 죄가 퍼진 것을 비교하여 우리는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깃털 베개를 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산 아래로 흩어졌고, 그들이 쉬던 곳에서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형벌을 다시 거두어 그들이 떨어진 모든 곳에서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행동과 정 반대였습니다. 아담의 행동은 죄를 낳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구절: “심판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정죄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가를 치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죄, “성경의 깃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니”(고후 5:19). 이렇게 하면 누구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에 정복되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7:3.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항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없다는 것도 이해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기로 동등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다(요 4:4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계 14:6)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음 구절(1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초래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서 거두셨다는 주장을 계속 전개하면서, 구속이 우리를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데려간다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전 단락에서 이 개념을 이미 설명했으므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독자들의 믿음의 눈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으나 특히 그의 마지막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형벌이 지불되었고 남자들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투쟁의 삶과 완전한 승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모든 인간의 죄의 삶을 대신하는 것으로 완성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사 61:10).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은 우리를 덮는 의의 망토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죄를 이기고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분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용서,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대신하시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빌 2:13)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행위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이 십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삶에서 이루시리라. 믿으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 10:16, 17.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 니라.” 로마서 5:20, 21.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은 그분과 함께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영향력 범위에만 제한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기록된 책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었습니다(출애굽기 20:3-17 및 신명기 5:6-21 참조). 그 이후로 그것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경계 내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행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알려졌고(말라기 2:7 참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 알려졌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율법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그의 불순종이 강조되었고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풍성하다”는 말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죄의 행위가 더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대폰 한 대를 훔친 사람은 두 대를 훔친 죄가 없습니다.

계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으로 인해 그의 양심이 깨어나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반대 방향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편, 율법에 대한 지식이 범한 죄의 끔찍한 악을 드러낸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모든 죄의 악이 극복할 수 없는 우월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범죄를 흡수하셨으나 모든 범죄자에게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상처난 반석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풍성한 구원의 샘이 솟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롬 8:39; 2:4).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죄가 온 땅에 번성하여 모든 곳에 악을 퍼뜨렸다는 의미에서 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그 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위협으로 자신이 받은 모든 악에 반응하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느니라”(사 53:7).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루크 23:54. 죄의 규모와 악성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그분이 받으신 악이 너무 많아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 중재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무한히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승자는 항상 패자보다 더 존경받습니다. 그는 항상 기억되지만 패자는 잊혀진다. 죄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리라”(빌 1:1). 2:10.

죄가 많거나 강조된 곳에는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은혜가 있기었습니다. 한없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죄의 위대한 정복자로 여겨졌습니다. 광범위하고, 완전하고, 웅장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둘러싼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흠 없이 나타나실 정도로 말입니다.

이 위대하고 강력한 은총을 묵상할 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관심을 흡수하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마음 속에 솟아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동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점차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 구절 끝에서 언급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과 죄로 죽었던”(엡 2:3, 1)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롬 1:1). 6:4. "그럼 누군가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느니라”(고후 5:17). 우리는 새로운 사람, 즉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베소서)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4.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유지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3-7.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표현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보살핌을 의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 삶을 다스리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ROM. 6:1-4

우리는 5장에서 죄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경악을 불러일으킬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더욱 큰 감탄을 자아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바울은 대답하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많은 만큼, 죄를 사하는 은혜가 더욱 강하고 영광스러웠으니, 우리가 죄를 더하는 데 기여하여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아니요,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를 없애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 시려고 나타나신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요일 3:5)



요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살이 강한 강이 흐르는 도심의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자기 한 아이가 강물에 빠지더니 빠르게 물에 휩쓸려 갑니다. 군중은 아버지가 강둑을 따라 달려가 급류에 몸을 던지고 아이에게 헤엄쳐 가서 아이를 안고 강둑으로 데려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고 강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기에 감동받아 웃음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뽐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 그의 품격을 드러냈고, 이는 모두가 생각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기적인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고전 13:5).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인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관심으로 아버지로서 행동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17. 아버지와 아들의 이 행동은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예레미야 31: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리라”(요 12:32).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생 당시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닌 우리에게 맞춰져 있었으며,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행위를 통해 결국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분의 정부의 공의를 보여줄 것이며 모든 사람의 더 큰 충성을 불러일으켜 우주 전체에 걸쳐 완전하고 영구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사야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을 때 “정권이 그의 어깨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9:6.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부를 정당화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를 마친 후 로마서 6장에 대한 묵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신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의 제사를 감사한 결과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심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복종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옛 삶의 죽음과 동등한 상황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송고함에 직면하여 세상과 죄는 매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마 3:16). 그 사람은 안돼

필요했지만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마태복음 3:15)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요한복음 13:15.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지라 .

5:21. 그러나 그분은 죄 없이 부활하셨고 “죄 없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죄와 그 매력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요 물에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우리가 그분의 체험을 산다는 표시니라 “땅의 가장 낮은 곳”

에페. 4:9,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몸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은 모습으로 죄 없이 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세례의 물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 삶에 작용하는 신성한 능력, 곧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3:10.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38).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우리를 십계명을 순종하여 허물과 죄로 인한 사망의 이전 삶에서 살리는 새로운 신성한 삶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2:50.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심겨졌을 것이라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함이니라 이를 버리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롬 6:5-7).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22. 그분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심) 죄 없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베드로전서 2:24). 그러므로 그분은 가장 악한 죄인으로 식별되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놋뱀을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죄의 창시자인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탄이 사람들을 범하게 한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한복음 3:14)라는 말로 상징의 의미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골 2:13); 그러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들에 대해 죽어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말로 선언합니다.

죄의 정죄는 사망이다(롬 6:23).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빛은 하늘에서 갠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길, 즉 옛 생활을 버리기로 결정했을 때만 이러한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탁월 유혹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우리 자신을 보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심겨져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짊어진 죄 때문에 확실히 죽으셨고, 다시는 그 죄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본받아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체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빚을 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더 어려운데, “죄의 몸이 없어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세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통해 “죄의 몸”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린다는 것은 파괴,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육신은 해체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후보자의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품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이 인격을 “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몸은 그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순간까지 세워지고 자라나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순종의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품성은 배양된 습관에 의해 형성되고 형성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세례 후에 이전에 형성된 품성의 모델은 점차적으로 무너집니다. 바울은 “죄의 몸은 멸절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통해 그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갑니다.

또 다른 상징은 - 이 매우 중요한 상징 -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위에서 로마서는 세례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성령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부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새 삶으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 경험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 살아라 하나님” 롬. 6:8-10.

위의 말씀은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녀 안에서 일하셔서 그녀를 불순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알려진 모든 의무, 계명에서 받은 모든 빛에 그녀가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분께서는 율법을 더욱 순종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단번의 승리 - 이것이 신자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줄로 여기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 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복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 주지 말라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운데서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찌하리이까? 죄는 없나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도무지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하면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롬 6:11-17).

이 발췌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행동, 즉 “고려”, “현재”, “마음으로 순종”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도는 이 절차의 결과를 보고하며,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완전한 해방에 대한 약속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 죄에 대한 승리임을 보장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누구든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체험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헛것이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나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요일 2:3-6).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율법 준수에서 면제시킨다는 이론은 기독교계라고 공언하는 세계에 널리 퍼진 이론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진리와 거리가 멀다. 자녀들아 누구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시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마귀의 일을 취소하려 함이니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이다.” 요한1서 3:7-10

“그리고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의의 종으로 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일들 중에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침내는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1:1). 6:18-23.

의의 종이 되는 것과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전에 우리는 “더러움과 불의”를 종으로 섬겼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요한복음 8:34). 우리는 우리 의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로워지고 강화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우리는 그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십계명을 준수합니다(시 119:172).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걷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본문의 이 표현은 반전된 추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노예의 반대 단어로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도는 그것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는 노예인 사람은 누구나 “정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면제되거나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는 자는 자기 속에 의(순종)가 없나니 이는 그 죄를 행치 아니함이라.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죄의 샅은 사망”이므로 여러분의 끝은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침내 영생이니라 죄의 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남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복종하면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법으로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서 다른 남편에게 속하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또 다른 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살아나신 이에 속한 것이니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7:1-3.

여기서 바울은 십계명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일곱 번째 계명은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결혼식이 끝날 무렵에는 “죽음이 해어질 때까지 남편과 아내를 선언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 간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 서약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신랑과 신부가 살아 있는 한 충실의 서약을 함으로써 두 사람을 “결합”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 있으면 다른 남편에게 속하면 음녀라 불리리라.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편에게 속하여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형제들과 우리 신자들은 3절까지 언급되지 않은 남편과의 결혼의 법으로 묶여 있었습니

다. 더욱이 이 남편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육신 곧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소되므로, 이 첫 번째 결합을 깨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롬 6:7).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반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부터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1:1).

7:4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다른 남편이 됩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그녀의 첫 남편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그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ROM. 7:5

전 남편은 '고기'였다. 팔, 배, 다리를 보세요. 그것들은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행함”이라는 말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경쟁과 분냄과 싸움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탐식이니라”(갈 .5:20, 21). 이 결혼의 아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몇 구절 뒤에 나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 지체 속에서 내 정신\*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묶는 다른 법을 봅니다.” ROM. 7:22, 23.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정신이 “자기”에게 집착하여 이기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정욕”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열정(불타지만 비합리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을 결혼식 제단으로 몰고 가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이기심 사이에 일종의 결혼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는 율법을 언급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심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부 갈등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이 삶과 행복의 이상인 것처럼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기"는

같은 나쁜 감정을 공유하는 커플처럼 그들은 동반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했던 결혼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잘못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악한 행위와 죄를 더하고 사망의 길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고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4; 로마 6:23).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합니다. “율법을 좇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알메이다 번역이 개정 및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롬 1:1). 7:6.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간음의 경우(로마서 7장의 논증에서는 다루지 않음)를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여 바울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만으로 “자아”와의 연합을 깨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신의 이기적인 뜻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십계명의 율법을 지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침내 영생을 얻었느니라”(요일 3:4; 롬 6:22).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영”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행동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를 보십니까? 그는 긴장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우 다르고 차분하고 명쾌합니다... 그는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영으로 섬기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경험을 보고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의문의 옛 시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결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결혼을 다스리던 율법은 우리에게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래된 (또는 오래된) 결혼에 묶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이 표현은 우리가 더 이상 첫 결혼에 묶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결혼의 법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일부입니다.

계명의 글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만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늙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결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요일 2:4).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쓴 내용을 오해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율법이 죄인가? 별말씀요! 그러나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음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모든 음욕을 충동하였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었습니다”(롬 1:1). 7:7, 8

문제는 결혼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위의 본문에서 "죄"라고 불리는 "나"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야기에 서 나쁜 사람, 즉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기뻐하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음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해로움이나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좋나요? 우리는 잘못된 줄도 모르는 일을 한 것에 대해 비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지의 때를 고려하지 아니하시느니라”(행 17:3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Paulo가 비교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래에:



아내와 남편, 정신과 육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결혼을 두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내와 남편이 조화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깨달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처럼 다르게 행동하고 싶지만 남편의 노예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게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내부 갈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군가가 정말 이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옳은 일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임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변환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이란 진로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개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뿐이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계명은 나에게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ROM. 7:9.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요한 복음 12:4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레 18:5).

원래 그들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악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기쁜 마음과 선한 뜻으로 계명을 제시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순종했다. 그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충성은 두려움과 반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전의 충실함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계명을 보고 그 계명에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기꺼이 순종했던 명령은 죄책감과 정죄의 원인, 즉 사형 선고에 대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예수를 박해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생명을 위한 계명은 내가 죽도록 하는 줄로 생각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틈을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ROM. 7:11, 12

위의 구절은 이전 구절의 교훈을 따릅니다. “죄”는 전 남편입니다. 우리가 그와 결혼한 후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행하였으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무지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속은 여자의 상황에 비됩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했고 그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의 존재를 주장하는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초대받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때도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은 술이 자신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벗어날 수 없는 중독에 빠졌습니다.

제거하다. 그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임종 당시 이미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오직 기적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 때,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죄의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부의 “남편”이 우리를 속였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화됩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우리가 그녀를 범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결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오래된", 구식이 되었다고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죽음에 능숙해진 걸까요? 별말씀을요! 오직 죄가 죄로 보이려고 나를 죽게 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악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13

이 시점에서 나는 그 구절에서 언급된 율법을 각각의 언급 옆에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조: “그러면 선한 것(십계명의 율법)이 죽어서 내가 되었습니까? 별말씀을요! 그러나 죄(전 남편)가 자기를 죄로 나타내려고(자기 악한 것을 나타내려고) 나를 죽게 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그와 연합시킨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될 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악하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그것에 순종하여 살도록 생명을 위해 제정하신 율법은 갑자기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의 상황에 몰아넣은 것은 옛 남편인 '나'였습니다. 우리가 무지 속에 있을 때 그는 우리 마음을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의 법으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 그분을 만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롬 6:23).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선을 위하여” - 결혼의 법은 그 자체로 선하며 간음, “죽음”으로 인한 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합니다. 즉, 이 법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결합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최악의 경험조차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기심(전 남편)의 영향으로 죄를 더 깊이 파고 들었다는 사실은 율법을 제시할 때 우리 눈에 그 공의와 거룩함이 더욱 부각되게 했습니다. 살인자는 일반 시민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느낍니다(출 20:13). TV 뉴스에서 카메라가 그를 가리키면 빠르게 내려간다.

머리. 이것은 암묵적으로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속담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 비교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전의 끔찍한 결혼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눈에 “심히 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옳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법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OM. 7:14-16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노력한 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독재적이고 변덕스러운 남편인 “이기심”에 의해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남편은 나쁘다. 그분의 뜻,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갈 5:20, 21) 등입니다. 이 예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룹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자아”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지위를 갖는 것 등을 “두 번째 의도로 선을 행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한 예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후 말에서 떨어져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에 작은 괄호를 넣고, 자신도 모르게 본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공언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그들의 간증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할 책임을 더 갖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실제로 성품이 더 낫다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이 그러한 간증을 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고 할 때 로마서 7장에 묘사된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뜻 -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확신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긴급하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 즉 “교회에 속한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한다 : 주님, 주님!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로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7:21-23)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회심하고 이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비기독교인과 이름뿐인 기독교인에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동의하거나 바울의 말에 따르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리 이론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그들을 영생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적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설명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신령하다”는 용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요한복음 4:24); 그리고 그녀에게 순종하고 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불립니다. 즉 그들은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2:5). 바울은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는 것을 “영적인 별미”를 먹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3, 4) 육신과 결혼한 사람은 “육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인 “육신적”이라고 불립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몸을 팔았도다”

(왕상 21:25).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상황은 마약 중독자의 경우이다. 마약이 나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습관을 버리고 싶다. 그러나 금단 위기가 오면 중독은 중독에 의해 “패배”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는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며”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승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즉,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1:1). 7:17

위의 구절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비교를 사용하여 주제에 대한 설명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결합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집을 다스리는 “남편”입니다. 마음, 즉 여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달아 계명이 선택하는 데 동의하고 변화를 원하지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체포합니다. 몇 명의 여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남편은 부분적으로 아내의 잘못에 대해 자신을 유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롬 14:12)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명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로 결근을 정당화하면 경고나 해고를 피할 수 있지만 직원이 일한 것처럼 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아진 후, 남자는 순종하려고 노력 하지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듯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변명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다른 남편, 곧 그리스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첫 결혼이 당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면, 왜 계속 그 결혼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녀가 첫 남편과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 죽고, 당신 영혼의 구세주인 타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소중히 간직한 나쁜 습관, 소중히 간직한 죄, 버리고 싶지 않은 악덕을 책망하면 그들은 물러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함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을 변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을 붙잡고 나와 화친하라”(사 27:5)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하나님께 올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죄는 그 사람 자신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직 우리만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주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싶느냐?” 즉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야고보서 2:19, 20).

바울은 변명하기 위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져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한 죄가 있음을 깨달은 후,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육욕적인 본성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고전 15:9).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장 전체에 걸쳐 발전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고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에는 그분이 죄를 승인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짜증이 난다.

진행하다". 이것이 의미라는 증거는 다음 구절에서 그의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제시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나는 아노니 사실 내 안에는 뜻이 있으나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  
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  
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이 법을 발견합니  
다. 즉,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 악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ROM. 7:18-22

즉,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을 알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순종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해. 죄(나)가 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직 첫 결혼 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서 이 (결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글쎄요, 악(첫 번째 남편)이 나와 함께 있군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는 내 이해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 엮어매  
는 다른 법을 봅니다.

그것은 내 지체들 속에 있습니다.” ROM. 7:22, 23

여기서 바울은 말장난을 사용하는데, 매 순간 그가 언급하는 법을 식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의 의미는 이 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속 사람(내 생각, 결혼한 여자)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  
나 내 지체 속에는 내 이해의 법(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결혼의 법) 아래에 엮  
매는 다른 법(결혼의 법)이 보입니다.” ROM.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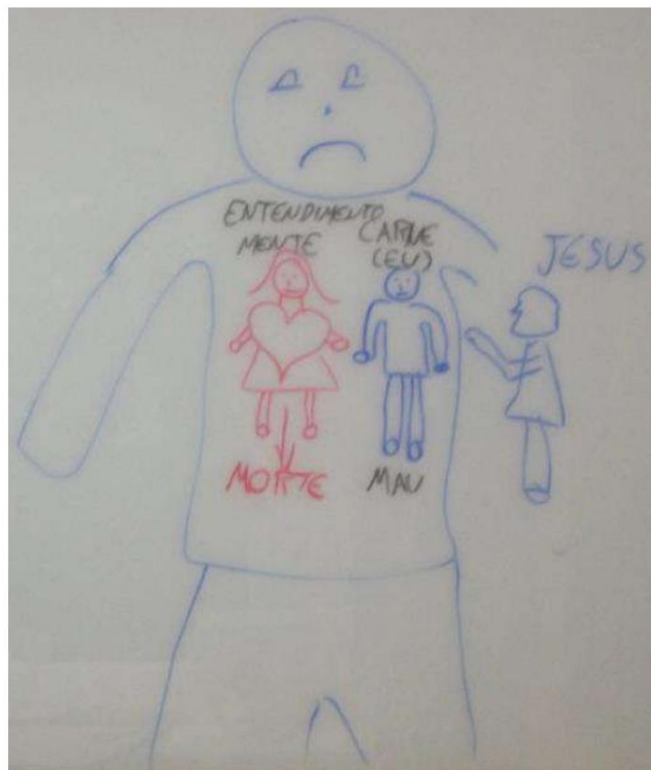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24, 25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 뜻에 순종할 힘이 없고 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지만 확신은 있지만 회심하  
지는 않지만 무기력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할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먹  
으리라.”

Apoc. 3시 20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굴욕당하고, 굴복하고, 불행한 여성으로 보고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녀의 새 남편이 되어 그녀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싶어합니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은 들어와서 그의 삶의 주인이신 새로운 남편이 됩니다. 한때 자아의 노예였던 마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죽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남편, 즉 육체, 즉 우리의 “자기”는 우리가 죽을 때만 우리를 종속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이 남편은 각 사람의 유전자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의지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습득한 습관의 힘이 더해집니다. 육체는 결코 변하지도 개종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옛 결혼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이해성이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우리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즉, 우리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늙은 남편은 그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요한복음 8: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종,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무서운 속박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36).

그러므로 남편인 육체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견딜 수 없는 결혼 생활을 깨고 그리스도와와의 새로운 연합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인 “여자”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싶지만 영적인 삶의 새로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에 대해서는 확실한 “아니오”가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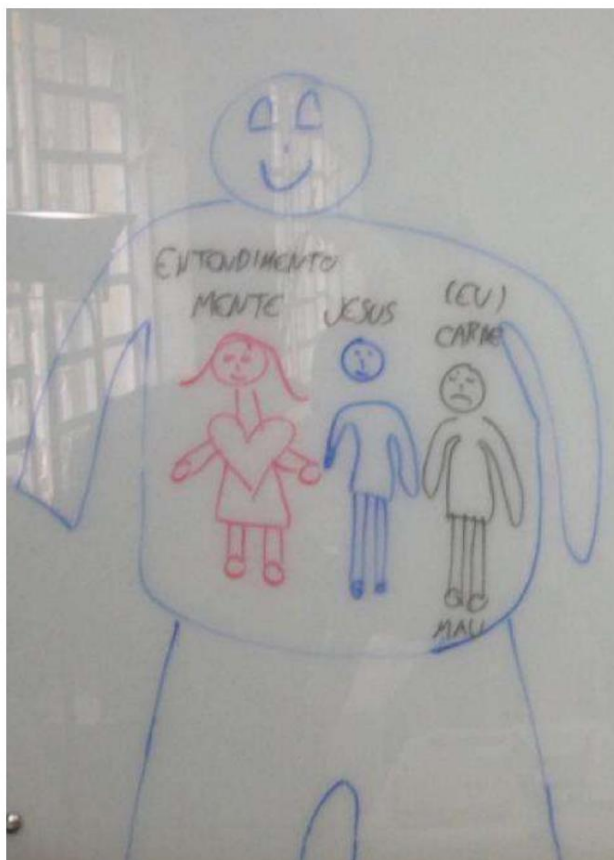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이 첫 번째 남편보다 훨씬 나을 것임을 깨닫고 그분의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법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의 연속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죽고 결혼법의 서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바꿨습니다. 질문: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니라”(롬 1:1). 7:25;

8:1.

우리는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옛 노동조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원할 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악한 욕망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도록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롬 1:1). 7:5, 6.



로마서 7장의 기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롬 1:16),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죄를 깨닫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개종하여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의와 거룩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원하며 실제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이 부여됩니다. 성령은 그분을 섬기려는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언하시고,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갈 4:6)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죄의 종)이 아니요, 아들(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순종하는)이 된즉 네가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갈 4: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받은 능력을 소유한 참된 신자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요일 5:3). 여러분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복된 경험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관해 지속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논쟁은 논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일 그가 회심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고 영생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확신을 갖고 회심하지 않았을 때 자신에 대해 말한다면 논쟁은 무너지고 단 하나의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 작은 공간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주장은 이미 이전 섹션에서 제시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썼을 때 이미 회심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만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15).

2 -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과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알기 전의 자신을 언급합니다.

이는 9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나는 한때 법 없이 살았습니다.” 로마서. 7:9

3 -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된 순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 1:1). 7:9.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사도행전 9:5)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찬성했습니다(행 8:1).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살인자요 범법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4 - 그런 다음 죄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확신하지만 여전히 변환되지 않음

그는 자신에 대해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생명을 위한 계명은 내가 죽도록 하는 줄로 생각하였노라.” ROM. 7:9.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옳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법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OM. 7:14-16

“육신에 속한” 사람, 죄 아래 팔린 사람은 누구든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한복음 3:6, 7).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들은 영원히 남아 있다.” 즉 죄의 종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요한복음 8:34-36). 죄 아래 팔린 사람들도 여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36).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황이나 회심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비록 이미 진리를 확신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율법의 정의에 동의한다고 간증합니다. “나는 율법에 동의합니다. 어느 것이 좋나”. 이 장에 제시된 추론 전체에 걸쳐 동일한 노선을 따르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전혀 편안하지 않다는 감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데 결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24, 25.

동사 시제는 미래형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서 여전히 일어나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겼지만, 즉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선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 3: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확신했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 시제 미래.

5 - 8장 시작 부분에서 그는 현재로 돌아가서 연설을 하면서 개종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신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1:1). 8:1.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고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니라”(롬 8:1).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러한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엡 2:8)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가셨을 때 성령을 받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행 2:32, 33; 요한복음 16장). :8).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저항하지 않으면 성령은 “믿음의 영”(갈 3:14)이시므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도록 감동시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행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계명으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인도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위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된 체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체험에서는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아 마음으로 믿습니다. 가짜에서는,

오직 겉으로만, 또는 “입으로”.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10:10.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7:21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은 사람 자신의 육신에 의해 된 것이니라 이 육체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믿는 이라 하며 외적인 종교에 고착하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ROM.

8:2

“영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독자가 더 깊이 숙고하고 이전 장의 주제를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바울이 자기에게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도다”(벧후 1:2). 3:14, 15.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영의 법”이라는 표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다. 그러므로 영의 법은 영이 따라야 할 법칙, 즉 존중해야 할 법칙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영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표현에 언급된 법은 앞장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곧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6) 즉, 바울은 결혼에 대한 비유 또는 비교라는 7장에 제시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은 남자, 자기 이기심의 종, 육신이라 불리는 남편에게 매인 여자에 비유했고, 회심한 남자를 첫 결혼 때문에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여자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남편에게 패배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자신의 뜻(육신의 남편)의 노예로 여기면서 항상 패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 여자는 집의 머리로서 그녀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선한 남편(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그리스도에 의해 강화되어 자신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뜻의 주인이 되는 개종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결혼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 매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롬 7:2). 여자를 남편에게 결속시키는 율법의 핵심은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입니다. 20:14. 그러므로 당신의 비유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첫 남편에게 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심하지 않은 남자(결혼한 여자가 그의 육체에 매여 있다는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일곱째 계명을 비유적인 결혼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평생. 당신의 육체, 즉 의지는 당신을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죄의 샅은 사망”(롬 6:23)이므로, 바울이 제시한 예에서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이 이전 장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가 법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은 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유에서 그 성취의 힘을 적용했습니다. 즉, 죽을 때까지 배우자의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자기”(육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이기심에 죽는 경우에만 그것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전 단락에서 폭로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복종할 때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개종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며 자신의 의지의 주인이 되고 더 이상 의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그는 7장에서와 같은 비유를 따르는데, 이제 두 번째 결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결혼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에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발생합니다. 일단 회심하면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하듯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 새로운 결합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은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 죽겠다는 우리의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새로운 결합의 힘은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법의 불변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1:2).

3:17).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3, 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한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을 순종하게 하는 데 충분한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후,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순종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 8, 9).

이 새로운 상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마약 중독자에게 금지된 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독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픈 사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는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그것은 사람을 순종으로 이끄는 데 충분한 도구였습니다. 즉 “잘 작동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는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할 수 없거나 “병들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율법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가 범법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시 20분.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를 강화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미덕이나 힘이 없습니다. 이 작업은 당신에게 불가능합니다.

위의 구절에서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생명의 덫에 걸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 즉 우리의 이기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성향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계명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심 없는 사랑입니다(누가복음 10:27). 이기심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대적 원칙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오직 하나만이 지배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빌려서, 타락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노예입니다. 그가 “병들”었거나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도 그를 이 노예 생활에서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순종하게 하려고 율법을 친 '병'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율법이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마치 구덩이에 뛰어들어 사람과 같습니다. 소방관의 밧줄 길이보다 깊어서 그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이 새로운 타락한 상태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고안하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베드로전서 1:19, 20). 율법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것이 육신적으로(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약함으로 인해) “약해” 즉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즉 인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사성이라는 단어는 가능한 모든 의미에서 평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멸절"되었다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7.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요한복음 1:14)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유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같은 것을 나누셨으니... 모든 것이 그 형제들과 같았으니” 히 2:14, 17. 이런 상태에 계시면서도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히 2:14, 17). 4:15.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본성과 한계에 있어서 우리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는 지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요한복음 5:30)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다음 측면에서만 그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태어나셨고(도덕적 부패나 결함이 없는 성품으로) 우리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거룩하게"(누가복음 1:35) 오셨고 여기에 오셨을 때처럼 흠 없는 하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서의 그분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공통된 모든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획득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그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큰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으로 제사하시고 그 경외하시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다 이루었으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히 5:7-9). 세상과 육신의 요구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바울은 이 승리를 “육신에 죄를 정하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온 우주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삶을 통해 죄를 불법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또는 인간의 육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작고 중요한 관찰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기셨고, 그분이 승리를 얻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고의적인 죄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드릴 것이 없고 오직 심판과 우리 대적을 소멸할 불의 무서운 기다리심이 있을 뿐”(히 10:26) 27.

요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인 아버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알므로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6, 17.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경험에 재현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18, 20.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을 이기셨으니 이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롬 1:1). 8:3.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죽음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이 아니요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 8:5-9).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기 뜻의 종들이 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들은 “육체와 마음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2:2.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조화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14). 그러므로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억누르지 아니함이라 그의 율법이라 또 율법은 그의 뜻의 표현인즉 사람이 자기의 원수가 되고 율법을 범하여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알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대로 된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를 죽음으로 이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고 성령이 자신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허용할 때, 즉 자신을 능력으로 가득 채울 때 이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영이 육신과 싸워 이기나니 이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7.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뜻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그분의 율법에 포함된 하나님의 지침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러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거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17.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활동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생을 얻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와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니라 자발적인.

앞 항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마음속에 성령이 작용하도록 허용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 다

표현은 같은 정신을 나타냅니다. “한 영이 있습니다” Efe. 4:4.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요 15:26).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 사도행전 2:32, 33.

이 시점에서 영은 존재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이 정의되지 않은 하나님의 발산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하신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요한복음 4:24),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죄로부터의 자유. 영을 통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위에 주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힘과 정신

여호와를 아는 것과 경외함이라.” 이사야 11:2 은사를 받아 얻은 열매나 행위

영은 모두 십계명과 조화를 이룹니다.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 23.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이를 예배하는 것은 큰 실수요 죄라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 이해에 조화되고 일치하여 온 우주는 타락하여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계 5:1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다.” 로마서 8:10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조건은 이것이다. 즉 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다. 즉 마음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6장을 연구하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 의를 행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이미 보았습니다(롬 6:13).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힘을 붙잡고 나와 화해하라” 이사야 27:5.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확실합니다. 내 손” 요한복음 10:27, 28. 이 경험을 하면서 당신의 몸은 죄에 대해 죽을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마음)은 살아 있거나 율법과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전달된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삶의 상태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요 12:49, 5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2:1. 즉, 그들을 불충실한 상태에서 꺼내어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절도 동일한 현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라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로써 우리가 부르짖어라, 아바, 아버지.” 로마서 8:12-15

빛진 사람은 누구나 빛진 것을 값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경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뜻에 빛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 위해 그것을 만족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야고보서 1:15). 어린아이로서 우리는 “입양의 영”으로 언급되는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엡 1:13, 14).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갈 2:20).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레위 제사장 곧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 는 너희의 기업이니라”

1:1, 2.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표상이었는데, 그들은 나중에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얻으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베드로후서 2장). 2:9, 10.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아들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6)

“같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노출된." 로마서 8:16-18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때 깨닫습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 양심에 평안과 평안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 봉사자들의 경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18. 이 확신은 우리가 죄 없이 새로워진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2 애완 동물. 3:13.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히 1:1, 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지상에서 굴욕의 길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14:4.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16 즉, 우리는 모든 인간 형제가 복음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길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2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같은 피조물이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희망하느니라.” 로마서 8:19-2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날, 그에게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십시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28. 그리하여 그들이 순종을 유지하면서 받은 축복은 그들의 영역까지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은 그들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사람에게만 들어왔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창조물이 죽게 된 것은 자기 뜻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 통치자들의 뜻 때문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식물과 동물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들은 죄의 저주의 모든 흔적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피조물이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고 처음 일은 지나갔으니” Apoc. 21:4.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성령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어찌 기다리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느니라 ” 로마서 8:22-25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고전 2:9) 축복의 낙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죄가 도처에 가득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고통과 비참함과 멸망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뇌는 출생의 고통과 비슷합니다. .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비유적인 의미에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갈 때, 그리고 당신은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 우리의 고통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poc. 22:12.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이 두 배나 일어나리라”(나훔 1:9)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기면 악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죄인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무엇을 아시느니라. 성령의 뜻은 성령이시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 27).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양심을 감동시켜 우리 자신을 거부하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영이 육체를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갈 5:17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고후 2:12) 이런 현실을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므로 말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양심에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시 139:23)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 롬. 8:34.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저희 가운데 받아들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가 있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8-30.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요 3:16; 4:42).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덕적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예레 4:1).

31:3).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유일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지시하는 길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영원 전부터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느니라”라는 복음의 초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실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라 .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니라” 단.

12:3.

그러나 행복에 대한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거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반역한다면, 우리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건부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입니다. 2:10. 로마서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을 수행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29, 30

이 말에는 참으로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그분은 그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주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바다의 고기와 땅의 새를 다스리라 하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시느니라” 창 1:28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더러 이르기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리하면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마 17:20).

이 점에 대해 바울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말할 시간이 부족하  
노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정의와 ,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서 강함을 얻기도 하며 전쟁에서 싸워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  
서 11;32- 34.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저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희를 정죄하는 자는 누구이뇨  
죽으신 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또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를 위하여” 롬 8:33, 34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신다는 확신은 우리  
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시대에 더욱 소중한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  
되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며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내어주겠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  
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10:21, 22). , 그들은 거짓 증인을 일으켜 우리 중 많  
은 사람을 정죄하여 우리를 극악한 죄인으로 보이게 할 것이며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법과 사회 질서의 원수로 심판  
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아시고 공활히 여기시나  
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주의 주재이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느니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  
로 거짓 서술에 따라 진행되는 정의의 모형에 불과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지구상의 위대한 자들 앞에서 고요하고 하  
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여겼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  
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이 다 없느니라 , 도 아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롬 1:1). 8:35-39.

로마서의 주요 주제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희생을 치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이 사랑의 끈은 풀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리를 대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은 바울이 소유한 이러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에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죄인인 당신을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보십시오. 두분의 사랑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양 광선은 거리로 나가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하느님 사랑의 영이 가득합니다!

##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내 양심이 성령으로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는 것을. 내 형제들아 육신으로는 내 친척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인이요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는 조상이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유 위에 있는 것이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이다!” 로마서 9:1-5.

요한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 1서 3:14.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들을 사랑한다면

누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 그리고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또 무엇을 합니까?” 마태복음 5:44-47.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쓰라린 적들이자 박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주받거나” 그리스도로부터 정죄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모세가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의 돌판과 뜻을 기록한 계시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복음이 담긴 성경을 낳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참 예배의 형태에 대한 지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미래의 불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인간에게 한 모든 약속이 성취될 분의 오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39; 고후 1:19, 20). 그리스도 자신도 성육신하여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분에게 수반되는 모든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지적하고 세상을 위한 보증금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파울로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의 모범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일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844년에 하나의 백성으로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셨으며 십계명을 정부의 기초로 갖고 계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필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시는 메시지의 형태로 세상에 배포될 보증금으로서 율법의 새로운 전달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선지자 사역에 의해 전달된 연속적인 계시는 모세에게 주어졌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것과 유사합니다. 건강 관리, 식이 요법, 질병의 자연 치료 방법 및 영양소 설립 지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학교 설립을 위한 조언을 포함하는 참된 교육의 원칙. 그리고 최고의 계시로서, 로마인들에게 제시되고 이 책에 드러난 빛과 일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 죄 없이 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요일 5:4).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원수와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사람들. 과거에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현재의 박해자들에게 대한 동정심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진지한 갈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가리개가 벗겨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대신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들은 곧 자녀가 아니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오직 약속의 자녀니라 자손으로 여김을 받으셨느니라” 로마서 9:6-8.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뜻이다. 족장 야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몸을 맡겼을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 32:26-28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인생의 그 시점까지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형에게 주려고 했고, 그 결과 형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약 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의 땅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수년 동안 머물렀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분노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달래려고 자기보다 먼저 선물을 가지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여사가 사백 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고, 그곳에서 그의 어깨를 만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분과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신의 사자는 그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를 절뚝거리게 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드러냈다. 방문자의 신성한 기원을 인식한 그는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주께서 “거기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창 32:2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영적인 의미는 죄의 용서와 승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이 주실 죄에 대한 승리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 ".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 즉 바울의 말대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녀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계명들은

그것은 믿는 자의 삶에 실현되어 순종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고후 1:19, 20),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희 씨라 부르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롬 1:1).

4:16).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때가 이르러니 내가 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잉태하였은즉 그들은 본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약간에 없으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다 하였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원하노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가나 무엇을 행하는가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롬 9:9-16)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십니다.

앞 구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행하거나 받는 어떤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논증을 확장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에 아들을 낳은 사라의 경우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의 출생 환경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예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를 신성한 영적 가족, 참된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증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하는 선지자 말라기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에서가 태어난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며, 그 말씀은 그의 행위와 그의 자손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3, 4). 발췌문을 읽어보자

말라기서에도 “내가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을 황무케 하였으며 그의 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주었느니라 에돔이 이르기를 우리가 가난 하여도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것이니라 그들은 건축할 것이요 나는 멸하리라 그들이 그들을 부르니 이는 악한 땅이요 여호와와 영원히 진노를 받는 백성이니라” 말 1:3, 4.

하나님께서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내린 결정을 언급하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분은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우리는 가난합니다”라고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에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메시지.

말라기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에서는 형제 중 장자로서 장자권에 대한 권리, 즉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행동하고 가족 내에서 메시아 복음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며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매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죽을 먹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고... 그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으니... 장자권을 업신여기고”(창 25:30-34) 그리고 바울 자신도 히브리인들에게 에서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음”(히 12:17)을 강조합니다.

“큰 자가 막내를 섬기리라”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언급되었지만, 바울이 이 두 말을 순서대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보면 부주의한 독자는 두 말이 모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다른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생각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은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여러 구절과 모순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요한복음 4:42). )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딤후 2:11) 본문의 설명에 이어 바울은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나 그가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설의 초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행하십시오 .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용서(혹은 칭의)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충분히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마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허용했습니다.

그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나 방해하고 방해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불변의 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 우리의 실수에 대한 모든 부끄러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의심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와 영생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언제나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동반되므로, 오늘날 우리는 순종을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모든 유혹을 이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일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출생 환경,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28.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이 복음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그 때에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직도 원망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이 사람아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대답하리라 그것: 네가 내게 이같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자 하시면 너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으니 이는 또한 긍휼의 그릇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이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나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았느냐?” 로마서 9:17-24.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강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줍니다. 모세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5:2.

“나는 주님을 모른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스라엘 종들이 그분을 숭배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바울의 가르침도 아니니라



이 구절에서. 그건 그렇고, 사도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 정확하게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를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바로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데려가는 왕에서 자비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자비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유익에 더하여 가혹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안식과 안식의 기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마음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의 간청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하여, 그것이 수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인 범죄에 대한 동일한 징벌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 1:22).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강박하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로 그는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의 영향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시게 됩니다. 양심이 굳어질수록 그의 사랑에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자를 돌이키고 악에 매달리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동일한 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열음을 녹이는 태양이 아니라 점토를 굳힙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다른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답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혹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한 덩어리로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할 것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로봇"을 창조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들의 존재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입증합니다. 자유 선택 능력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고려하고 분석한 다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창조물에서 그분의 임재에 대한 모든 증거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조언에 복종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사회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는 그릇”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드러내도록 모든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의인을 이기게 하십니다. 천년이 넘도록 무고한 신자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최악의 고문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류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히브리서 1:11)이라고 보고합니다. 11:38.

그들은 가장 잔인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베푸신 친절과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 스테반은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잠들었느니라”(행 7:60)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4:34)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악인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느니라 성경은 이에 대한 예로 헤롯의 종말을 전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요한에게 명하사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후에 예수를 희롱하더라.” 헤롯이 어느 날에 왕의 예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그들을 위하여 연행을 하였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소리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21-23. 이와 같은 경우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이 성취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긍휼의 그릇에 쏟으라 이 이 그릇은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노니 내가 내 백성 아닌 내 백성, 사랑받지 못한 자를 부르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 곳에 이룰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가 그 일을 이루사 이루실 것임이니라 의가 부족하니 여호와께서 땅에 일을 쉽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니 그대 우리가 말하리요 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하리니 그대 하리니 그대 의의 법을 구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됨이냐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니 기록된바 보라 내가 두었다 함과 같으니 그들이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시온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셨도다. 이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9:25-33.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한 그들의 회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거기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호세아의 말대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에 관한 거짓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율은 “남은 자”에 비유될 만큼 적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온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와 같이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었느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지켰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법을 구하여 의의 법을 얻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 1:17.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요 3:18).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속아서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라”(요한복음 11:50).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는 길에서 그들을 방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여 그분에 의해 분개했습니다(막 6:3).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픈 현실은 오늘날 공언하는 기독교에서도 널리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딤후 3:1) - 5.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영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연결과 헌신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의 몸일 뿐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또 다시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걸림돌로 삼는 것이니라.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영감받은 말씀 -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교회의 교리”로 대체하는데, 그 중 몇몇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만족합니다. 그들의 교리의 한계를 벗어난 가르침은 그들을 분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자이신 그리스도는 사실상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 슬픈 현실을 보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말씀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재앙” 요한계시록 18: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후(주후 70년) 확실히 멸망되었듯이 이 타락한 교회와 그 지도자들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품고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주께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로 역사하사 적어도 진리를 받고자 하는 이 남은 자에게는 받아들여지게 하지 아니하셨을진대 이 타락한 교회 전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죄의 결과로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각은 없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쓰느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니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느니라.”

로마서  
10:1-4

참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며(딤후 2:3, 4), 그것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의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싶게 만드십시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19, 20. 일단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기로 결정할 수 있다(롬 3:22).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 또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 분명하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의를 얻게 하려 하심 아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여 이르되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이르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하니 곧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를 믿고 입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롬 10:5-11)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율법에 따른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순종하는 한 그들은 그녀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으며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먼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저자”이시다(히 12:2).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Apoc. 3시 20분.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든지 죽은 자 가운데든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살아 있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4.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 책에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너와 함께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마.

12:34). 당신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이 당신의 구주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당신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당신은 그분을 당신 삶의 주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분의 영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12, 13

국적이나 신앙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아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요한복음 4:42)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복음이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14-17

복음 메시지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계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들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보는 것을 기뻐하며, 천사들은 인간 사자들과 기꺼이 협력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가기에 동의하세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누가 우리 설교를 믿었는가?"입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모든 축복에서 우리를 막는 유일한 것은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람에 날아가기를 바라지 않고 나무에 매달린 사람처럼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에 주는 강력한 인상을 저항합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사도행전 7:51).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마음” Heb. 3:15. 성령의 감동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믿도록 권유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엡 2:8).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귀 있는 자는 영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계 3:1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합니다.

그녀에 대한 우리의 의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두리라 너희가 백성 아닌 자로 질투하게 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자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가 담대히 이르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반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로마서 10:28-31

복음은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스테반을 죽인 후,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되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니라”(행 8:1, 4) 그러자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여 이미 그 때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 골 1:23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들었으나 그 마음이 강퍽하여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바울과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였으니 (행 13:45) 저희가 스스로 종교인이라 하여 전체 종교의 창시자요 중심이신 자를 거역하는 것이라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셨으니 저희가 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 본 일이 없으므로 구하지 아니 하느니라 그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를 기쁘게 영접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고된 이야기에서 이러한 현실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에는 도시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대인 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정직한 몇몇 여자들과 그 도시 관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의 지경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행 13:43-52. 이로써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만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종일토록 말씀하시니라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손을 뻗었느니라.” 만일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전파하는 진리를 모순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 설명된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참된 설명, 특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고전 8:6)의 존재와 모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힘을 얻어 결코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땅을 걸을 수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는 성경의 계시와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유대인들처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신앙과 종교가 다른 많은 비재림교인들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메시지.

##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이 엘리야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하나님께 고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으니 이제 이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다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건축." 로마서 11:1-6.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생각은 원한과 복수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부합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야고보서 1:20)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어찌 자기 키우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 곧 자기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자궁?

하지만 그 사람은 잊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사. 49:15.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전체가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중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라고 불리는 소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의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진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로 구원자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자로 만드는 대리인인 성령을 그분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는 말씀의 실제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9.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을 때 선물로 받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구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문맥에서 “은혜”와 “행위”는 반대입니다. 행위는 인간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 용서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은혜”의 꾸러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영생을 상속받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전 구절에서 논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로마서의 말씀은 재림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재림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삼위일체 신앙과 같은 몇 가지 거짓 교리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교인들을 부르시며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만일 내 음성을 들으라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 3:20)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무리에 합류할 남은 자를 구성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신조 중에서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택하신 자들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고 눈을 가려 보지 못하며 귀를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이 듣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이 되어 보응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등을 계속 굽히게 하소서." 로마서 11:7-10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재의 재림교인 모두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옹호하는 사람들, 즉 "율법의 백성"은 설교하고 순종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들 중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무력한 영혼을 구주의 보살핌에 굴복시킨 사람들만이 그분의 자비를 얻었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어 참된 순종, 즉 변화된 마음을 바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서 자기 교파에 속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들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빵, 즉 그들의 영혼을 고상하게 하고 구원할 순수한 교리를 그들은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강단이나 그들의 기관에서 승인한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빛이 나와야 하는 강단인 그들의 "영적 식탁"은 그들 자신의 "끈"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칭의에 관한 진리를 모순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예배, 그들의 설교단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의 그릇이 되고,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울무가 되었습니다.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성경의 순수한 계시에서 나오는 하늘의 빛을 향하는 것을 그치고 인간의 철학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등을 굽히고 이 어두운 세상과 그 관습을 아래로 바라보며 그 사악한 관행에 점점 더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절할 것입니다. 그들의 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에서 떠나 결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여 저희를 격동시켜 경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고 저희가 쇠약하게 되면 이방인의 풍성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방인 여러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를 선동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세상의 화목이 되려니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열매가 거룩 하면 반죽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11-16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고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지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결과 취해진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 결과 다른 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행 8:1-4). 또한 현대에는 재림교회 회원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배제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진리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계 14:7).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이러한 종교 단체가 타락하고 쇠퇴함으로써 세상은 진리로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진정한 경험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에물레이터" 또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몸에 속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는 진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외칠 때 발생합니다.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로 그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현대 백성과 합류하기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통해 바울은 과거와 현재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재림교인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봉사하고 있다. , 하나님과 함께 (고후 5:19) 그리고 이 두 몸 사이에 있는 이 영혼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최근에는 재림교인들)로서 “첫 열매”, 즉 첫 번째 열매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된 첫 열매, 즉 첫 아이였습니다(신명기 18:4; 시 105:26). 그들이 먼저 진리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영적인 삶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그들이 연합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표시입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만약 개종한 후에 그들이 어떤 백성에 합류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이미 개종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3. 그리고 이 백성은 오직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Apoc. 14:12. 그러므로 이 백성은 모두 성도들이다. 이미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재림교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리로 돌아왔고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다시 임명된 사람들은 첫 열매 즉 뿌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서에 언급된 덩어리 또는 가지를 구성합니다. 본문에서 추출한 주요 진리는 출신에 관계없이 마침내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 즉 “성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럼?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으로 계명에 순종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계명은 “거룩하다”(롬 7:12)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으나 네가 감람나무인즉 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면 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들에 맞서는 것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니 뿌리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1:17, 18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연설합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너희” 라는 대명사는 그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현대에는 “율법의 백성”(이스라엘인과 재림교인) 사이에 이미 확립된 유사점에 따라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율법의 백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파괴”되었다는 것, 즉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은혜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영적으로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나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복음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겸손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3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은 겸손으로 용서와 성화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구절에서 전달되는 개념입니다.

“네가 이르되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잘하노라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는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즉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을,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끊어질 것이다.”

로마서 11:19-22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것은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닦치게 하여, 환난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 방식이 그들을 이끄는 파멸을 미리 보고 제때에 후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준엄하심은 그분의 친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롬 1:1). 2:4. 반면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친절을 베푸시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강화시키십니다. “네 뒤에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라” 이사야. 30:21. 이 관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백성”에 속하던 이방인에 속하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그분의 친절을 베푸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만일 너희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나무에 속한 자들이야 어찌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리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완악하게 된 것이 들어왔느니라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로다.” 로마서 11:19-27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므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거역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영과 아내(그의 교회) 이르기를 오라 듣는 자마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라”(계 22:17).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곧 고대와 현대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고 원하는 사람마다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이스라엘과 재림교인)가 수많은 무리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믿는 자들을 모아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은 “승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기록된 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계 2:7)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일으키사 본래의 종교적 배경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일 3:5) 나타나셨으니, 그러면 그들은 모두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하신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모두 한 몸,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8,29

이 진술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몇 세기 전에는 재림교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와 교파로서 그 지도자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경우에는 그의 개척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두 번째 경우에는 재림교단의 개척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두 몸의 현재 구성원 모두를 잃었으나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 사랑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 그를 만나러 간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잊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사. 49:15.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은사와 소명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멸시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도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주는 선물이다.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소명”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두 민족의 개척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신이 그들의 삶에서 약속의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속은 너희가 그것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계속 주어지며, 회개하지 않아도 약속은 주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와는 단축되지 아니하시므로 구원하지 못하시느니라 그분의 귀가 상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가리워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 59. 또 악인에게 이끄는 진실로

당신은 죽을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공의와 의를 행하며 악인에게 전당물을 도로 주며 도둑질한 것을 갚고 생명의 율례를 따르며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는 기억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공의와 공의를 행하셨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에즈. 33:13-16.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이 사람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도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상을 받으려고 먼저 그에게 주었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므로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30-36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첫 번째 시대에 복음이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골 1:23)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재림교인의 완고함은 영원한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계 14:7).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 24:14, 30, 31. “주께서 친히 명령의 말씀과 듣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그 후에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16, 17.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모든 사건을 지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오리라”(마 24:14).

참된 복음을 알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루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쉬운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27-29. 누구도 그분의 은혜의 초대에 완고하게 저항하여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말씀의 가르침, 양심의 소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그분의 섭리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의 상속이 될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